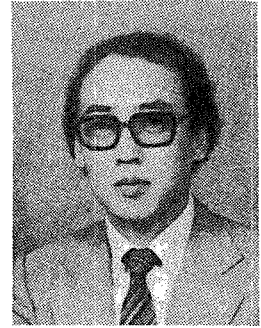




環境을 保全한다는 일 그 使命과 遂行을 위한 育成案

—다시, 6.25 에 생각하는 戰爭과 環境保全 代入—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1. 環境團體의 活用

지금이야 軍에 入隊하면, 양말에서 부터 총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에서 지급해 주어, 아무 불편없이 軍隊生活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었다고 한다.

특히, B.C. 4百年경의 GREECE-MACEDONIA 의 경우는 軍에 入隊해도 平常服 차림으로 軍服務를 해야 했고, 심지어는 식량도 各者 집에서 갖다 먹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物資가 귀했던 때라 軍服이다, 軍靴다 하는 軍需品을 지급하지 못했었다는 얘긴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니, 진짜 愛國心이랄까?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킨다는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武器, 즉 창이나 칼 또는 활만은 나라에서 지급했는데, 그 지급 방법이, 지금같이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수령해 갖는게 아니라, 下賜式이랄까? 그런 특별한 儀式을 거쳐 지급했다는 것이다.

즉, 軍에 入隊한 사람들에게 武器를 줄 때는, 아무리 바쁘고 사람이 많더라도, 꼭 王이나 사령관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대하여, 격려와 당부의 말과 함께 武器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儀式이 어찌나 엄숙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눈물로 충성을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儀式을 받고 싶어, 軍에 自願入隊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史書는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部隊를 옮겨 다닐 때마다, 武器가 바뀌어, 애착심이랄까? 그런 武器와의 一體感이 없지만, 그때는 下賜된 武器의 경우, 平生을 보관하게 해, 家寶로 삼게 함으로써 武器를 귀하게 여기게 했다. 그러니 자연 戰場에 나아가 죽기를 두려워 하지 않고 용감히 싸울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무슨 軍需品 얘기나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序頭를 꺼낸 것은 아니다. 요즈음 環境이 惡化되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말끝마다 公害, 公害라고 하면서도 아직 이렇다 할 획기적(?)인 對策이나 方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理想論에 지나지 않을 얘긴지는 모르나 뭔가 꼭 달라지는 對策과 方法, 즉 環境을 어떻게 保全할 것인가? 또 그 環境을 保全하는 團體에 대한 育成等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書頭的 國防과 武器 등에 이 問題를 代入시켜 보는 것이다.

간결하게 片片想으로 정리한다.

1片 : 나의 國家觀이라는 거창한 用語를 쓴다
면, 첫째 國防(安保), 둘째 環境保全(自然保護), 셋째 經濟發展을 꼽는다.

물론, 國家와 環境은 같은 脈絡으로, 애써 國防과 環境保全을 따로 논위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엔 왜지 安保는 現實의인 問題지만, 環境保全은 理想的인 問題로 보려는 視角이 當然時 되고 있어 蛇足を 붙이는 것이다.

國防은 敵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環境保全은 汚染과 破壞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에서는 先, 後나 輕, 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의 豫算도 國防費가 100 이라면, 環境保全을 위한 豫算도 100 이여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90 이나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環境保全을 위한 豫算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2片 : 環境保全을 위한 豫算이 높아진다는 것은 「環境廳」의 힘(環境保全을 위한 事業力)이 강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豫算을 쓸 수 있는 「環境廳」, 생각만해도 신나는 일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鐵道 가까히 사는 住民들의 騒音 被害를 막기 위해 交通部에 防音壁을 설치해 달라고 사정할 必要도 없다. 「環境廳」 豫算으로 防音壁을 척척 해 놓을 수가 있다. 그 뿐이라, 都市汚染의 主犯인 自動車 배기 가스의 경우도, 애써 自動車 메이커에 집진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어진다. 집진장치를 대량 생산해 全國의 自動車에 부착시키면 그만이다. 어디 그 뿐이라? 全國의 모든 河川 요소 요소에 處理場을 건설해 汚染을 根本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산하 團體에 보조금을 충분히 주어, 精神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3片 : 環境保全 團體, 특히 「環境廳」 산하의 民間團體에 대한 效率의이며 지속적인 育成策이 그 어느 때 보다 아쉽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活用해야 한다는 얘기다. 法人으로 認可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書頭の MACEDONIA에서의 武器 지급 儀式으로 代入해 볼 때, 法人 認可는 곧, 軍에 入隊하는 것을 허락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軍靴(차량지원?)니, 軍服(研究室?) 등은 못줄 망정, 敵(汚染)과 싸울(環境保全) 수 있는 武器(일감=用役)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豫算이 그렇지 못하다는 現實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4片 : 王이나, 사령관은 戰爭터에 직접 나가 싸우지 않는다. 부하들이 나가 열심히 싸우다 죽을 뿐이다.

環境保全 團體에 있어 「環境廳」은 王이나 사령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의 戰爭(環境保全)에서는 王과 사령관이 직접 戰場에서 싸우고, 부하들은 후방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 한다.(요즘, 廳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王이나 사령관께서 직접 나가 싸우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 그렇다면, 問題는 심각하다. 아니 부하를 믿을 수가 없어서 戰爭터에 내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問題는 더욱 심각하다.

2. 環境團體의 使命

5片 : 1977年 自然保護 범국민운동이 시작된 이래, 自然保護 運動이라면서 계속 쓰레기만 줄고(自然淨化事業) 있으니까, 지난 해 某방송국에서 내게 보다 根本的인 自然保護 對策을 물어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여러 雜多한(?) 對策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認識問題 즉 自然保護의 當爲性에 對한 正當한 評價를 할 수 있는 수준 얘기까지 나왔는데, 記者는 그럴려면 教育을 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時間이 소요된다며 딱 부러지는 方法論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눈 딱 감고, 〈環境保全主義者들이 自然을 몽땅 사버리면 될 것〉이라고 말해 버렸다.

물론, 꿈 같은 얘기다. 그러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말하자면, 共有物에 대한 認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私有財產化(?)해서

보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든다면...

서울 都心에는 이렇다 할 公園이 없다. 빌딩은 雨後竹筍 마냥 솟아나지만, 물론, 건축법에 몇坪의 綠地空間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껏해야 花壇 정도 꾸미거나, 울타리 담 위에 풀 몇 포기 심는 것으로 대신한다. 말하자면 앉아서 쉴 그늘이 없다. 街路樹라는 것도 매년에 그을려 기댓다간 옷 버릴까 겁난다. 그래서 우선 明洞 한복판, 조그만한 건물 한 채를 사는 운동을 퍼는 것이다. 街頭 모금도 좋고, 재벌의 회사금도 좋다. 아니면 環境保全主義者들끼리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집의 물건을 내다 팔아서라도 1坪 짜리 전 10坪 짜리 전 空間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땅을 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조금씩 조금씩 空間을 넓혀 나가다 보면, 의외로 共感하는 재벌도 있게 되고, 아쉬운대로 明洞 한복판에 3백평의 空間은 마련 못하리... 그렇게 되면,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리고 팻말을 자랑스럽게 쏘는 것이다. <여기, 쾌적한 서울의 環境을 위해 聖地(?)를 조성하여 市民에게 바칩니다>

이런, 운동이 全國적으로 메아리 치고, 성공하면, 우리의 環境은 자연히 쾌적해질 것이다.

6片 : 세계적인 環境保全 團體로 SIERRA CLUB을 얘기한다. 최근 그들이 展開하는 環境保全 운동은 <사진 찍어 놓기>라고 한다.

즉, 현재의 美國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다는 것이다. 지난 號 時論에서 記述했던 바와 같이, “環境保全論자가 걱정하고 있는 環境의 變化는 歷史的·타임 스케일로 보면, 두려울 정도로 빠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느껴지지 않는 속도”여서 많은 사람들은 10년전의 環境 상태나 광경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바로 이점이 問題다. 지나간 環境을 기억하지 못해서 현재의 環境을 당연시 하게 되는 安易. 적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環境 變化의 규모와 본질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問題는 都市化에 따라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都市化에서는 새로운 것밖에 평가되지 않

기 때문이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포도와 딸기의 미각으로 기억되던 「安養」이 이제는 서울의 위성 도시와 같은 분위기를 주고, 전통적인 古屋이 保存된 都市로 여기던 「全州」 등이 産業化 都市로 그 면모를 색신(?)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環境의 變化를 깨닫도록 하려면, 以前의 景觀의 일부를 남겨두고 비교 시키거나, 아니면 사진으로라도 수록해, 環境의 變化를 경고해야 한다. 따라서 環境保全 團體는 全國의 都市와 農村 그리고 山河를 사진으로 담아, 5年 단위로 비교 展示하거나 사진집을 刊行하여 일반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그 옛날 MACEDONIA의 戰爭엔 人間이 있었지만, 오늘의 戰爭엔 人間 대신 機械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 人間이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 주위에는 機械만 차갑게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른다.

7片 : 環境保全 團體가 展開해야 될, 운동은 단순히 公害對策이나 環境保全이 아니다.

보다, 根本적으로 環境汚染을 막는 일 즉, 環境의 敵을 정확하게 판단해 그를 물리쳐야 한다. 戰爭에서 단순히 敵을 죽임으로써만 目的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敵國을 完全히 수중에 넣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 我軍에게도 필요하겠지만 敵이 利用할 수 있는 교량을 서슴없이 破壞하고, 건물과 기타 施設物도 없애게 된다. 말하자면, 勝利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 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環境을 保全하기 위해서는 環境의 敵을 없애야 한다. 그것은 利己心이고, 사치며, 낭비며, 자만과 우월감이다. 이러한 것들을 人間의 精神 속에서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가 評價되는 條件들을 과감히 없애야 하는 것이다.

10개의 廢水終末處理場을 만드는 것 보다는 1개의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유흥장을 없애는 것이 보다 效果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敵에게 지고 만다. 그래서 安保의 次元에서도 環境保全이 중요한 것이다. *